빵과 벽돌
미래 도시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빌프리트 봄머트 지음

도시농업이 세상을 구원한다

전문가들은 21세기 말에는 아마도 120억 인구 중 90억명이 도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환경과 기후 문제를 취재해온 독일 기자 빌프리트 봄머트는 21세기, 도시에 사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급자족'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펴낸 '빵과 벽돌-미래 도시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는 도시 농업에 대한 시도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베이징, 방콕,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도쿄, 아바나 등 대도시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다가올 세계 식량 위기에 맞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 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건물 옥상에 작은 밭을 가꾸고 현관 앞 자루에 화분을 만드는 등 저마다 가능한 방법으로 조금씩 자급자족을 하는 모습이 생생하다. 〈알마·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과장하는 중국, 압축하는 일본, 은유하는 한국

한중일의 미의식

지상현 지음

이념적이거나 韓 곡예적이거나 中 탐미적이거나 日

왼쪽부터 해녕해신묘전(중국)·경복궁 근정전(한국)·도다이지 금당(일본). 처마 선을 보면 중국은 매우 곡선적이고, 한국은 완만한 곡선, 일본은 거의 직선적이다. 〈아트북스 제공〉

일반적으로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 집약하면 한 민족의 세계관이자 인간관이다. 한 개인의 인생관과 성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듯, 한 민족의 문화는 그 민족의 현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동북아시의 세 나라, 한·중·일은 오랜 기간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닮은 듯 다른 독특한 문화를 일구어온 세 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

세 나라의 문화를 비교해 삼국의 과거와 현재를 밝힌 책이 출간되었다.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 지상현 교수가 펴낸 '한중일의 미의식'은 '심리학' '디자인' '미술'을 통해 문화의 지형을 파헤친다.

"세 나라는 비슷한 점이 무척 많다. 인종도 비슷하고 인접한 지역에 살며 기후와 산물도 비슷하다. 유교와 불교가 융성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며 서로 간의 왕래도 많아 비슷한 건축 양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심상히 넘기기 어려운 이런 차이도 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

저자는 우리 문화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뒤섞여버린) 세 국가의 양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모두 일곱 가지 유형을 도입한다. 곡선성, 전형성과 은유, 강박, 공포와 해학, 대비, 복잡도, 전망과 도피가 그 준거다.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삼국의 고대 건축이다. 중국 저장성의 해녕해신묘전, 한국의 경복궁 근정전, 일본 사찰 도다이지 금당은 각국의 건축 특징이 잘 드러난 문화재다. 중국은 매우 곡선적이고 일본은 거의 직선적이다. 한국은 그 중간쯤에 해당한다. 왜 그럴까.

중국의 옛 건축물은 과도할 정도로 처마가 올라가 있다. 땅덩어리가 크고 여러 민족의 문화가 어우러지다 보니 건축 양식도 다소 '과장적'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매우 직선적이고 간결하다. 각종 목재 부재들도 대부분 직육면체로 기하학적 비례와 균제미에 맞는 형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완만한 곡선에 해당한다. 조지훈의 시 '승무'의 한 구절처럼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 같은 모양이다.

저자는 이 같은 건축물의 특질을 심리적 근거에서 찾는다. 중국인들은 부드럽고 화려한 남쪽 건물을 선호한다. 양저우, 난징, 상하이 등이 있는 장쑤 성이나 저장성, 후난 성 등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은 처마의 곡선이 두드러진다. 과장을 좋아하는 기질과 음양 이론이 주원인이다.

일본의 간명하고 직선적인 형태 또한 특유의 성정에서 비롯되었다. '매뉴얼 사회'에서 보듯 상황마다 무수한 매뉴얼이 존재한다. 건물의 기하학적인 간결성은 지진과 같은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다. '덤벙주초'가 대표적인 사례다. 덤벙주초란 "주초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대충 다듬어 덤벙덤벙 놓은 것"을 말한다. 화순의 쌍봉사, 삼척의 죽서루 등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자연환경의 불규칙성을 통제하기보다 순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세 나라의 기질은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 과장하는 중국, 압축하는 일본, 은유하는 한국. 이렇듯 문화는 각기 다른 국가의 지형을 드러낸다. 이 같은 특질을 이해하면 수많은 문화적 이슈들이 동일한 심리적 기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트북스·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국 -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장강명 지음

사건 … 시간과 기억, 속죄

제20회 문화동네 작가상 수상작인 장강명 장편 소설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 출간됐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인물은 세명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을 괴롭히던 동급생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남자, 그의 뒤를 집요하게 좇아다니며 자신의 아들은 그를 괴롭힌 적인 없다고 주장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의 과거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룬 남자의 소설 응모작을 읽고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여자. 저자는 세 인물을 통해 시간과 기억, 속죄라는 삶의 본질적 문제를 풀어나간다.

일간지 기자 출신인 저자는 '표백'으로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림문학상도 받았다. 〈문학동네·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학 공식으로 풀어낸 세상 곳곳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공식

존M. 헨쇼지음

1920년 보스턴에서 한때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 있다. 바로 찰스 폰지라는 다단계 사기와 연계된 인물이다. 다단계 금융사기를 뜻하는 폰지 사기(Ponzi scheme)의 원리는 간단하다. 고수익이 있다며 몇 사람을 꼬드겨 투자금을 받아낸다. 그러나 투자 대상이 될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계속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이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폰지 사기꾼에게 걸려든 최초의 2명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려면 4명의 투자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16, 32, 64…로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라 하는데, 이 공식으로 투자자를 구하면 초기 투자자에서 20세대만 내려와도 투자자 수가 52만4288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황당한 전제조건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 털사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존 M. 헨쇼가 펴낸 '세상의 모든 공식'은 수학의 언어로 세상 곳곳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공식'이라 해서 수학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학공식에서 영감을 토대로 생활 깊숙이 자리한 원리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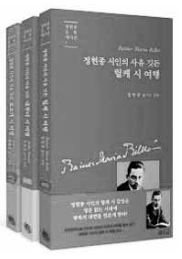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과학과 공학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예술, 레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52가지나 되는 신기한 수학 이야기들은 짤막짤막하지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세상사를 풀어가는 데 스토리텔링 기능을 이용한다. 수학이 세상의 원리와 인과를 설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도구지만 '방정식'의 배후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방정식이 난무하는 책을 읽는 요령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가끔은 건너뛸 줄 아는 것도 진정한 용기다."고. 설렁설렁 읽어도 좋고, 읽고 싶은 순서로 읽어도 좋다고 한다. 방정식에 신경쓰지 말고 이야기에 주목하라는 의미다. 〈반니·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시인이 읽은 네루다·릴케·로르카



정현종 문학 에디션

도서출판 문학판이 등단 50년을 맞은 정현종 시인의 글를 모아 '정현종 문학 에디션'을 펴냈다.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릴케 시 여행' '네루다 시 여행', '로르카 시 여행' 등 3권이 출간됐고 이후 '정현종 산문집 날아라 버스야', '시인의 그림이 있는 시선집 섬'까지 모두 5권 분량이다.

네루다와 로르카는 시인이자 뛰어난 번역가이기도 한 그가 국내 처음 소개한 시인으로 특히 네루다 시 번역본은 '파블로 네루다 메달'을 받을 정도로 원작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는 '네루다의 시는 언어라기 보다 그냥 하나의 생동이다'라고 표현했다. 집시의 피가 섞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스페인의 시인이자 극작가 로르카의 시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고 모든 세포를 새롭게 솟아나게 한다'고 말했다.

세 권의 책은 유려한 번역의 원작시와 함께 정현종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읽어낸 감상을 함께 실었다. 특히 시인이 육필로 직접 쓴 원고를 사진으로 담은 점이 눈길을 끈다. 〈문학판·각권 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60주년 호남예술제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 · 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 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미술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임슬기(비아중3), 김민희(광주여고2) | 2007년 제52회-조은지(전남중3), 김해주(광주여고2) | 2008년 제53회-김재현(일곡초2), 김민정(광주운암초4), 신재민(광주중앙초5), 정소리(전남중3), 이은주(전남여고3) | 2009년 제54회-이호현(동림초2), 김세연(광주교대부설초3), 정은채(신암초5), 이주희(광주경신중2), 진재영(첨단고2) | 2010년 제55회-김준서(마지초1), 임하리(순천남초2), 박지현(광주송원초3), 이세림(광주운암초6), 이가영(일곡중2), 박상아(광양제철중3), 노하은(여수여고2), 김다영(호남삼육고2) | 2011년 제56회-최원창(진남초1), 박가은(유덕초3), 이시욱(매곡초5), 전혜주(광주북성중2), 범지선(수피아 여고2), 조아라(대성여고3) | 2012년 제57회-이예원(고실초1), 조은송(광주송원초3), 김민정(용두초5), 김민혁(장덕중1), 정윤미(살레시오여중3), 이인혜(광주예고1) | 2013년 제58회-성세경(금당초1), 권유선(광주계림초4), 정재윤(광주송원초6), 강민지(광주동성여중3), 정지윤(광주여고1), 박혜령(조대여고2) | 2014년 제59회-정윤설(광주송원초1), 김예린(광주계림초4), 정다연(운남초5), 정다인(대성여중2), 문지윤(장덕중3), 윤화인(전남여고2), 박혜령(조대여고3) | 2015년 제60회-김윤서(광주송원초2), 정요훈(장덕초3), 김민지(서광초5), 천미성(용두중3), 오승화(상무고2), 박신영(광주여고2)
작문부문 최고상 | 2006년 제51회-김성희(광주월곡초5), 박주연(동아여중2), 김지수(인천청량중3) | 2007년 제52회-조혜민(광주송원초2), 김하연(동아여중3), 정다움(풍암고2) | 2008년 제53회-김민영(유안초4), 이주희(동아여중3), 한유나(대광여고2), 신미희(보문고3) | 2009년 제54회-최지윤(광주송원초1), 송상혁(숭의중1), 백재열(안양예고3) | 2010년 제55회-박동현(두암초4), 조은(광양동초4), 황현웅(광주송원초5), 김소연(동아여중2) | 2011년 제56회, 차진우(염주초4), 김유진(광주송원초6), 김민빈(경신여고3), 김민정(경신여고3) | 2012년 제57회-김남현(광주송원초4), 심현지(문정여고3), 차나연(상일여고3) | 2013년 제58회-전유민(유덕초4), 손상원(광주삼육초5), 정소영(대성여고3) | 2014년 제59회, 이성재(광주송원초4), 박민유(광주송원초6), 류강희(여도중3), 선혜경(금호중앙여고3) | 2015년 제60회-김지우(광주송원초5), 정지윤(동아여중3), 공혜지(광주장덕고3) ※수상당시 학교명과 학년을 표기하였습니다.